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5)

주제: 동아시아의 고전(古典)과 음악

중국문화대학교 111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강좌 제 15회 강연에서는 중국 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 齋藤正志 교수를 초청하여 「동아시아의 고전(古典)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齋藤正志 교수는 동아시아의 고전(古典)과 음악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일본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해 소개하였다.

먼저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위지(魏志)》 및 기타 고대(古代) 중국 문헌에 고대(古代) 일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에서는 히미코 여왕(卑彌呼女王)에 관한 기록이 유명하다. 또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력연간(延曆年間)과 승화연간(承和年間)의 견당사(遣唐使)는 중국음악을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견됐다. 제 1대부터 82대까지의 천황 중 몇 명은 사실상 실존하지 않았던 천황과 여성 천황이 있었다고 한다. 齋藤正志 교수는 세 번의 천도(遷都)와 역사서, 문학서와의 관계, 그리고 각 시대의 다양한 문학 장르를 간단하게 언급하며, 고대 귀족들의 삶, 당시에는 남자가 보낸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사랑이 시작되었으며, 여성은 수동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齋藤正志 교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자 이래 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온 칠현금(七絃琴)을 소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칠현금(七絃琴)은 수당(隋唐) 묘준(墓中)에서 발굴된 탄금인우도(彈琴人偶圖)이고, 무릎 위에 놓을 정도로 작은 악기라고 하였다. 《예기(禮記)》에는 음악이 천지를 조화시키는 것이고, 금석사죽(金石絲竹)은 음악의 기구, 즉 악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것이 유교의 예악사상(禮樂思想)의 기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천황은 고대 중국의 예악사상(禮樂思想)을 계승하였는데, 그 일례로 오절전무(五節田舞)가 있다. 이는 제45대 쇼무 천황(聖武天皇)이 당시 28세였던 여황태자 阿倍內親王에게 하령한 궁중무용이며, 예악사상(禮樂思想)의 계승이 구체화된 예이다.

54대 닌묘 천황(仁明天皇)은 그의 아버지인 준나 천황(淳和天皇)의 40세를 축하하기 위해 거문고를 탔으며, 닌묘 천황(仁明天皇)의 황태자 미치야스 친왕(道康親王/훗날 55대 몬토쿠 천황)도 부황의 40세를 축하하기 위해 칠현금(七絃琴)을 바쳤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황태자가 칠현금(七絃琴)을 타거나 아버지에게 바치는 목적은 자신이 차기 천황 자리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칠현금(七絃琴)은 《사기(史記)》에서 사마상여(司馬相如)와 탁문군(卓文君)의 사랑이야기를 연역(演繹)하였는데, 이 사랑이야기를 계승한 일본 고대문학 《우쓰호 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는 제1권 《俊蔭》에서 俊蔭의 딸이 칠현금(七絃琴)을 연주하고, 귀족의 아들이 그녀에게 반해 하룻밤을 보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쓰호 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 이전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에서는 여주인공 가쿠야히메(輝耀姫/かぐや姫)의 양아버지 타케토리(竹取翁)는 가쿠야히메(輝耀姫)가 인간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면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양녀 가쿠야히메(輝耀姫)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가쿠야히메(輝耀姫)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5명의 귀족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었고, 결국 구혼자들은 모두 실패했다. 일본 천황도 가쿠야히메(輝耀姫)와 결혼하려 했지만 가쿠야히메(輝耀姫)는 일순간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 천황도 결국 단념하였다. 결국 가쿠야히메(輝耀姫)는 인간계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달의 도시로 돌아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대 귀족의 현실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에서 가쿠야히메(輝耀姫)는 양아버지의 주장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과 능력에 따라 결혼을 거절한다. 또 《사기(史記)》와 《우쓰호 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칠현금(七絃琴)을 타며 하룻밤의 사랑을 이뤄냈다. 허구세계에서는 여성이 사랑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황태자 阿倍內親王은 부황(父皇)의 예악사상(禮樂思想)을 계승하기 위해 다섯 절의 田舞(풍작을 비는 전래 춤)을 추었다. 그가 두 번째 천황으로 즉위했을 때 弓削道鏡에게 왕위

를 물려주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허구적인 이야기에서나 역사적 사실에서 여성이 남성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網頁連結：<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日文撰稿：齋藤正志 日文系教授 中文翻譯：涂玉盞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